대학원생 세미나 2014. 1. 16

참석자: 전재성, 도종윤, 최인호, 옥창준, 이규원, 용채영, 김은지, 이재현, 곽민경, 진활민, 홍성표, 박상연, 석주희, 김봉주, 남예린

리딩: 이익주, 김병준 외 지음.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 역사재단(2010) (발제: 용채영, 이규원)

<토론>

진활민: 어마어마한 주제. 시공간이 엄청나게 뛰어서 근대국가체제를 넘어서는 부분. 유비추리, 비교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음. 저의 질문은 과연 그 때의 당시 시대를 봄으로써 최근의 국제질서 예측, 이해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연결성을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가? 옥창준씨는 Cox가 논의한 제도, 이념, 물리력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함. Cox의 작업은 변증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변화했으며, Social force를 보는 것. 자본주의 구조의 형성을 통해서 세계질서의 형성을 보았다고 함. 동아시아 지역질서도 조공-책봉-관계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자본구조의 형성 이후의 구조가 짜여있는 것을 봄. 급격한 변화. 고대시대와의 단절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이어서 지금의 작업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가? 발제자는 청대, 명대, 국가 간 관계. 국가 중심성을 띄면서 발제 함. 행위자의 변화성을 인식한다면 이 시기의 시대관념과 현 시기의 세계구조, 시민성은 상당히 다름. 그런 것이 과연 유비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매개, 이을 것인가? 중간에 구조를 끼어서 논리를 이을 것인가 고민이 됨. 과연 유사하다고 해서 다시 반복될 것인가 의문.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논의와 맞물려서 조공-책봉 정책처럼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도 자기들의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중국이 패권국으로 떠오르면서 하는 것, 현 시대의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구성될 것인데 프로파간다적임. 당시 조공-책봉 관계가 반복될 것인가?

명-청 관계 주로 언급되는데 그럼 왜 위진남북조, 전국시대는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부분까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볼 수 있나? 조공책봉관계가 동아시아에서 특징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유럽에서의 봉건제도, 로마 시대의 제국과 주변국과의 관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비교연구까지는 어마어마한 작업. 그게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지만 동아시아의 특징적 구조라기 보다는 힘, 제국과 주변의 국가들 간의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동아시아에서만 조공-책봉이 특징적인가? 왜 특징적인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곽민경: 논의들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이론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에서 나오는 외교문서들 역사, 사상들을 끊임없이 찍어 붙이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의도적으로 국제질서 이론을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이 단순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역사가 짧아서임. 중국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많은 사상들,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태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양의 국제정치학처럼 하나의 개념, 이론으로 깔끔하게 정의를 해보자는 생각에 정의되어 있음. 조공체제가 그런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임. 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국, status, 정의가 가능할까? 장용진의 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생각해볼 때 과거-현재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요함. 그것을 한 개념으로 개념화해서 계속적으로 21세기로 끌어와서 완전히 달라진 구조, 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미래 예측을 하고 있는가? 장용진 선생님의 논문, System, Empire등의 개념을 탐구하는데 중국은 “pretending to be a state”라고 함. 차라리 우리의 연구는 하나의 개념보다 어떻게 pretending을 하고 있었는가를 봐야 함. 여러 전략들, 기미, 번속, 내속 등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팽창의 의도를 감추거나 관리를 했는지. 어떻게 pretending을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봐야 하고 찔러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뜨끔하게 할 수도 있을 듯.

석주희: 현 논의를 정리해보면 2가지가 이론 구축의 접근방식이 섞임. 하나는 복합적인 거대 시기, 공간을 복합적으로 늘어놓고 역사적 시대 특징으로 전개하고 단일 이론으로 가져가는 것. 책봉-조공, 하나를 들어올려서 단일 케이스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론이 보편성을 가지려면 반복된 패턴,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상응하려면 두 가지 중의 뭐가 더 가능한가? 현재까지 기존 연구들을 더 많이 함. 뭐가 더 타당성이 맞게 전개되었는지 보고 가야 함. 국가 문제 불편함. 서양 국제정치 질서와 비판. 동아시아 특수성의 말도 동의 안 함. 다른 것인데, 동아시아 국제질서 지적. 국가+체제+규범적인 것, 나름의 단위가 설정될 수 있을 듯.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영토임. 유럽은 하나의 국경이 바뀔 땐 단일 국가가 아니라 인접국가도 변환되는 유동성이 있었음. 중, 한, 일은 영토적으로 분리됨. 영토적 특성도 고려해야 하고, 공간을 어떻게 설정? 중국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볼 것인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복합적으로 볼 것인지? 복합공간일 땐 조선-류큐, 일본, 등. 풀어진 복합공간이 설정. 마지막 한중관계의 경우, 그런 것을 읽기에 한국 연구자들이 쓴 것 불편함. 한중 호혜관계, 종속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관점에서 한국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내부 비판의 시도 필요.

최인호: 비슷한 문제들이 있음.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 이해의 문제가 있음. 지식권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됨. 한국 분들 쓰신 글을 보면서 약간 담론 싸움의 부분이 있고 현실인 부분이 있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음. 당연히 학자로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론화를 하기 위해서 전제로 하지만 지식이라던가, 동아시아 사(史)를 이해하고 동아시아 정체성을 그릴 때를 우리는 국제정치학적으로 공부함. 역사를 구성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력현상을 이해해야 함. 예측, 이해의 부분을 고려하는데 고민해야 함. 또 하나의 생각. 우리가 과거의 지속된 질서 연구, 오늘의 현상 보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과거-현재-미래가 있는데, 미래의 새로운 질서가 규범을 만들어나갈 때 역사적 상상력 등이 필요함.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를 절대화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을 담기 위해 노력 해야 함. 새로운 것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연구라는 것도 필요함. 이번에 읽으면서도 한국 연구자들 분들은 한국 위치를 과대포장하는 시각도 들어가 있다는 느낌. 그리고 진활민 씨가 말한 것처럼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예치, 조공체제 등을 중국 중심의 역사로 서술, 이해하려고 함. 반드시 그러하나? 영국학파, hegemony라고 이해하지만 이도 합의된 규범으로서 이해할 수 있음. 천하질서, 계속 서주 시대 때 천하관념이 만들어짐. 상호적-도덕적인 관계가 base였음. 여러 해석의 다양성이 남아있고, 중국이 이를 이데올로기로 활용한다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아님. 여전히 열린 가능성이 있음.

김은지: 역사 연구의 효용성. 국제정치학의 목적이 예측성이 있지만, 서구-동양이 상당히 다른 기초가 있다라는 역사적 연구. 국제체제로서 역사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 서구 국제정치가 국가단위를 잡고 시작했다면 동양에서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단위의 문제, 현 국제정치와 다르게. 조공-책봉 하나의 개념, 전 동아시아 전 시대 거쳐서 설명하기 어려움. 사서에는 확실한 현상으로 나타난 체제임. 이를 기반으로 역사적인 설명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나. 다만 오늘 이 발제문들, 동북아 역사재단의 책을 보았을 때 보완될 부분. 이 책은 한중관계, 베트남, 미얀마, 일본부분은 협소함. 동아시아에서 일본 연구의 부분은 협소함. 일본 행위자 배제, 중국적 시각이 배태되어 있음. 동아시아 관계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 배제되어 있는다는 것은 행위자적 비대칭성의 존재를 보여줌.

최인호: 아까 이론화의 이야기를 더 해볼 필요가 있음. 역사학자 분들도 다양한 이론들을 써가면서 어떻게 이론을 쓸 것인지 고민. 세계체제론 등도 제시. 세력균형론의 시각 등에서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론화가 필요할 것 같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동아시아 질서 자체, 질서 자체의 범주설정 자체부터 헷갈리고 있음.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를 뭐라고 설정해야 하는지? 역사적으로 존재, 규범적으로 존재한 국제정치 문화권에서 시작해서 공통의 문화권을 보는 것이 맞나?

이재현: 세 가지 이야기. 미래예측의 문제. 담론싸움의 문제. 조공-책봉 개념 유용성. 책의 거시적 문제. 미래예측은 저희가 한 모임, 이번 리딩의 책 자체의 목적 자체가 역사에서 얻은 이론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 아님. 역사-이론 까지만 가는 노력임. 그 다음으로는 방향성 제시하는 것 아님. 담론싸움의 문제는 한중관계, 호혜-종속관계 논의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중국 중심적 질서를 밀어붙이고, 한국은 주변중심적, 주변의 시각을 밀어붙임.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의 한계가 있음. 밀어붙이기, 한국 역사연구회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질서연구임. 이런 이분법 넘어서는 노력이라고 생각. Chinese theory도 아니고 Korean school도 아니고.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봐야 함. 새로운 것 만들어내기. 책에서도 제시된 것에서 더해진 논의 뭐가 필요한가? 조공 책봉이 얼마나 많은 시공간적 범위의 것을 제시하는가? 개념 범위도 다르고, 이념과 현실도 다르고. 다름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라 조공-책봉을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들어가면, 시공간적 범위 이해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시 현실에 중국과 조선이 실제로 일정의 조공, 책봉으로 인식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이 organize된 부분이 있다면, 허브와 관계 지어서 생각될 수 있음. 법이 있을 때, 법이 어겨졌을 때를 보아야 하는 것처럼 중층적으로 봐야 함. 더 이상 유효성이 없다고 버리기보단 복잡하게 보면 더 잘 볼 수 있는 틀이 아닌가.

최인호: 복잡화, 단순화의 문제는 그 자체로 판단되기 보다는 역사의 반복적 패턴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로 평가됨. 이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그 역사 속에서 여러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패턴을 반복하고 유용한 지침을 주는지. 조공체제가 살아남는 것. 뛰어넘는 것을 하는 것. 논쟁이 걸리는 게 시기, 공간을 나눠야겠다. 각자 나눈 actor들의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론화까지는 안 됨. 결국 이를 넘어서려면 어쨌든 coherent임. 국가, 초국가, 네트워크 등. 중요한 문제로 남음.

세력균형이론, 경험 사례를 갖다 씀. 당시 일정 시기 동안 벌어진 행동 패턴을 설명 해야. 우리가 복합적인 준거를 설정해야 하는지, 동아시아 지역질서라는 것을 하나의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봐야하는지. 이용희 선생님 경우 예, 사대자소의 원리 등을 강조. 이것이 통용되는 지역으로 유교문화권 상정. 이런 식으로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옥창준: 왜 이런 것을 하냐의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전통시기의 세세한 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현 중국, 일본, 한국에서 과거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는가. 전통이 원래 있었다기 보다는 재해석.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2003년 동북공정 등. 실제 중국의 경우 국가프로젝트로 진행. 중국도, 한국도. 독도관련으로 개발하는 논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전통에 대한 관점. 근대적 관점으로만 국사학적 관점을 진행. 중국, 한국. 한국의 국사학계 등은 일정하게 비판 받는 지점. 지나치게 한반도는 전체 동아시아에서 별 볼일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관계 유지한 것처럼 인식적 오류들을 주는 연구들 진행. 어떻게 보면 독자성 강조. 그렇게 보는 것, 그게 사실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근대적 민족국가적인 논리가 강요. 고려의 대 몽고항쟁 강조 등. 일정하게 현재의 국제정치적 관점을 투영해서 고대사를 읽는 것들. 고구려-신라 경쟁을 남북관계에 투영해서 보는 듯. 현재주의적 해석을 반영. 그런 점에서는 최근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 동아시아 사를 서술해서 동아시아 평화를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 동아시아사라는 논의가 나온 것도 보편화된 것도 니시지마 사다오, 6-8세기에 동아시아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오는 것. 동아시아 지역질서 연구회에도 그 이름이 들어감. 역사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규범적으로 중요하지만 역 편향.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해석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역사만들어 나가자 인데. 국제정치학자로서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중관계가 현실주의적 관계였냐? 국제질서가 당시 어떻게 작동했고,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근대국가적 관계가 아닌 ‘어떤 것’일 수가 있는데, 국사학계의 일국적 관점보다 국제정치적 관점. 상대적 내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국사학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현재의 평화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완전히 국제정치이론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결국 유럽국제정치학이 등장하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 유럽은 외교사, 국제법 영역 따로 있었고, 축적되어서 국제정치학 탄생.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론 개량의 것도 있음. 역사연구. 역사사회학적인 접근. 국제체제의 형성과정은 서구학계는 일정하게 소화. 오시엔더 등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행위자들이 참여. 국제질서 형성도 보여주는데 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 질서 어려움. 국가 행위자 문제부터 들어가면 국가가 아니더라도 명청 대는 상인 네트워크도 있고, 계급, 국가 등의 여러 단위들이 있음. 초보적으로라도 공부 하다 보면 질서의 작동 방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사학계, 인문학자들과는 다른 이야기임. 역사학자들도 최근엔 일정하게 이론 틀을 빌려와서 역사해석 하고자 함. 국제정치학, 역사학이 여러 방법론들을 받아들였던 반면. 국제정치학에서 역사학을 다가가는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일정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곽민경: 이걸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는지는 다 알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이론개발의 노력 와중에. 지금 논의들을 접하면서 답답한 것, 이걸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양에서도 대 논쟁 거쳐서 있었고, 논쟁들이 있어서 도달. 이런 연구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논쟁을 격렬히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교수님들임. 무엇이 적절한 방법론인가? 어떤 것이 적절한 연구 방법론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갖고 와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제기임.

최인호: 창준은 역사 강조를 이야기함. 저는 요즘 국제정치, 지금의 등장하는 국제정치이론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몸의 철학 리딩도 함. 인간의 몸이 갖는 보편적인 논리가 있을 수 있음, 세력균형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때도 이야기 했고. 과학적으로 미국에서 연구한 것도 완전히 도외시할 부분이 있지 않음. 그것과 그것 나름의 제도적 유산. 국제정치 질서 등의 독특한 모습. 여러 합쳐서 이론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석주희: 발제에서는 논의. 인종, 종교문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 인종, 역시 아시아의 규정에 있어서 상당히 정체성, 규범을 논의할 떄 중요함. 종교도 중요. 이 면에서 자아-타자의 관계 논의. 일단은 늘어놓는다는 점에서는 보지 않나.

최인호: 종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종교, 세계관의 영향을 잘 알려면 empathy가 되어야 하는데. 학문을 독해할 수 있는 연구자들도 많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관심, 예의 문제. 국제정치에서 작동하는 ‘예’. 계승범씨의 글에도 나왔듯이 조명관계, 명청 관계기에 얼마나 광해군이 고립되어있었는지 보여줌. 현실주의적 논리 갖고 있었던 사람은 소수. 명을 따르자. 이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적임. 그런 것이 종교적인 것과도 유교적, 성리학과도 바탕이 됨.

진활민: 동남아시아만 해도 인종문제가 중요.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갈등-협력의 관계가 결정. 우리는 화교 별로. 동남아시아는 일종의 화교 네트워크, 인종의 문제가 큰 주제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한다면 아시아 연구소에서 동북아 주제-지역 역할. 인류학적 문제 등도 다름. 세미나를 계획할 때 다른 시각을 통섭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선 인류학적 관점도 공부하기 필요. 국가 중심성을 탈피하는 것. 정치만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 결합 필요.

김은지: 범주설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범주를 꼭 설정해야 하는가도 문제. 지금 범주를 설정한다는 것은 지금 국제체제를 중심으로 그 때 분명하지 않았다고 함. 현 시대, 미래엔 얼마나 분명해 보일 것인가? 범주가 유동적이라고 해서 이 것이 어려울 순 있겠지만. 다원적 관점은 아니지만 조공-책봉 관계가 중점. 범주는 유동적 이지만 고대-중세-근세까지 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기초적인 질서를 부정할 수는 없음. 이를 대표하는 것이 조공-책봉이기 때문에 정도,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중심은 아님. 범주를 뚜렷하게 정의해야 함. 지금의 관점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충해야 할 것?

곽민경: 최인호의 연구 분야. 예 중요한 듯. 국제회의에서도 예를 중시. 나이 중시, 계급. 나이 순으로 따진 다는 것. 동양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주제.

도종윤: 왜 하는지 끊임없이 remind필요. 문제의식을 얼마나 공유하는지. 서양,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이론이 우리에게 잘 안 맞았다. 안 맞을 것 같다. 개인적인 “왜”의 질문, 개인의 motivation이 있음.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논문을 쓸 때마다 가져가야 함. “어떻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우리의 단계는 국제정치 질서에 관한 것인데 기존의 이론 대체, 대안 수준도 안 됨. 문제의식을 집어내는 수준. 중국과 일본의 관계, 과거의 관계를 다시 review하는 수준이고. 아직까지 우리의 논쟁의 결과, 서구의 이론을 대안적 설명을 하겠다고 갈 것인지. 회의를 끊고 규범적으로 가자는 것도 합의되지 않음. 공감대 형성이 덜 됨. 원대한 꿈은 서양이론을 넘어서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단계도 초보적임. 어떻게 갈 지는 잘 모르겠음. 똑같이 갈 수는 없음. 국가중심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인지. 동아시아에는 적용가능한지. 이를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려면 아예 시각자체를 달리하는 것들을 던져줄 창의적인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그런 idea를 얻기 위해서 철학 공부. “어떻게”라는 공부를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구조주의, 현상학도 보면서 힌트를 얻어내고 싶음.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음. 제가 생각한 것. 설명에 대한 이론과 규범이론이 혼재됨. 제가 가진 가설 중의 하나는 이론화는 불가능하다. 설명도 쉽지 않다. 단일한 이론을 추구했지만 잘 안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환은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시대도 잘 설명 안 됨. 국가들의 힘의 문제, 옳고 그르고 지식사회학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인 것. 이론화 불가능하면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으로 전파가 뭐냐. 좀 알아야 한다. 잘 모르는 게 많음. 이미 새로운 이야기인데 서양에서 다 한 이야기임. 아직은 미진한 단계이지만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합의가 가는 부분은 있음.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는 것 필요. 토론을 통해서 idea를 얻어가는 것으로 성공적임.

전재성: 한외사 연구팀. 나름대로 우리 것에 대한 관심! 25년 뒤에 우리의 작업?

전통시대 연구하는 이유? 개인적 관심. 우리의 인호, 몸이나 문화 속에 전통이 들어있음. 국제정치적인 현실과 별개로 우리의 시선, 맞는 자세, 사고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문법이 전통에서 영향을 받음. 인간은 자기해석적인 존재임. 사회적으로 만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로 소급됨. 근대, 현대를 물론 알아야 하고 나를 알려면 시공간으로 더 들어가야 하고. 인간이 되기 전의 상태. 전통시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역사관심. 대외관계사도 중요. 나에게 사대주의적인 피가 흐르나? 강대국에 동질성을 느끼는 숭배성이 있나? 계승범의 글에서 보듯 사대주의적 기간은 짧음. 청 나라 때는 없어졌음. 상당한 적개심 있었음. 조명시대와 같은 생각 갖기 어려웠음. 우리의 역사를 막연하게 봄으로써 자기를 잘못 해석하는 문제가 있음. 개인적으론 역사 공부할 때 재미있음. 왜 공부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사 관심.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임박한 문제. 전통 공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화는 별개임 .전통에 전혀 관심 없어도 됨. 전통을 정말 해야 하나? 근대, 현대 국제정치학에 대한 공부 없이 전통만 하는 것은 의미 없음. 현 서구 이론이나 해양분쟁, 지금의 국제정치문제는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다른 insight의 문제가 있음. 중국인들은 옌쉐퉁 류의 자오팅양, 중국학계도 나뉘어짐. 한 쪽은 중국식의 benign hegemony의 전통질서가 의미있다고 보는 쪽. 이론, 현실적으로. 관계 없다고 보는 쪽이 있음. 옌쉐퉁 시각에서 그러함. 그런 구범진 소개 초이념형 역사해석이라는 정신사적 해석의 틀을 보면 여전히 흐르는 부분이 있음. 중국은 이민족 왕조가 들어와도 결국 중국의 법통은 한족 중심이었다. 서구질서가 밀려오지만 이 역시 100여년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임.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근대의 보편적인 것이 있음. 원래 우리의 중화질서가 있었는데 저쪽의 근대국제질서가 우리를 흐린 것임. 중국, 힘도 있음. 각종 지표에서 중국이 정말 중화가 된다고 함. 모든 국가가 힘이 커지면 자기 힘을 투사하고 싶은데, 자기 성공사례를 투사하고 싶음. 중화질서 언어 투사. 중국이 성장했을 떄, 중국식 세계질서 만들 때 근대국제법 질서 부활시킬 것인 것 이전의 질서 부활시킬 것인가? 중국 주변국 외교 등에서 나타나는 중화적 개념, 중심-주변 간의 레토릭이 현대언어로 변용되어서 나옴.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는 역사학자들의 논의가 바로 사회과학, 국제정치적으로 이론화되지 않고 정치화되어서 바로 나옴. 사회과학적 이론화를 우회해서 정치적 레토릭이 됨. 중국 사회과학자들이나 주변 사회과학자들이 이를 막아야 됨. 중국 사회과학자들은 안 막음. 전형적 국제질서. 다중체제. 베트남, 한국, 류큐, 대만, 일본 정도인데 류큐는 16세기 이후론 양속관계로 감. 중국이 전형적인 의미의 benign hegemony였다고 할 때 중국 전통질서에 대한 지적인 counterbalancing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중국식 세계질서 투사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음. 중국은 자기네들이 위협 안 한다고 해도 사이즈가 커서 동아시아의 인문지리를 보면 한 나라가 너무 큰 유럽과 다른 상황임. 극단적 imbalance를 만드는 지리적 상황 속에서 전통질서가 올바로 투사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론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동아시아. 유럽의 국제정치이론이 잘 안 맞는다의 그 때의 서구의 이론. 주권국가들 간의 이론들 간의 이데올로기 성은 없는가? 비판이론,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원리, hierarchy를 보면 지금의 국제정치 보면 200개의 주권국가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몇 개의 제국과 하위 국가들 간의 관계인데, 이것이 착시적으로 보임. Hierarchy under anarchy가 있는데 이를 통째로 바꾸지 못함. 서구이론을 그대로 들어올 때 서구이론의 이데올로기 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동아시아 설명이 안 됨. 이 쪽은 주권국가들 간의 관계가 아님 서구 이론의 제국성.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진화과정을 보면 중국은 중화질서. 일본은 메이지 제국성 보유.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사실 inter-imperial들 간의 남북관계 정도 임. 동아시아가 서구 국제정치이론으로 분석이 안 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쌓여져 왔던 부분에 있다. 서구도 중세 국제정치에 대한 논쟁, 현실주의가 중세에도 적용되는가? 서구도 근대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전근대의 evolutionary process에 대한역사사회학적 연구 필요. 우리는 전파된 서구와 과거와의 단절성이 큰데, 우리도 연속성 있을 수 있다. 19세기부터 말고 이전의 시기와의 연속성 파악할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관심?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개발에서의 의의는 부분적임. 우리는 지구를 국제정치이론을 하는 것 필요. 중동, 아프리카, 이론. 유럽도 이론화. 유럽의 이론이 보편화된 것도 이론화. 지구 전체를 이론화하지 않으면 서구 국제정치의 이데올로기 비판 밖에 안 됨. 서구도 자기 history를 갖고 이론 보편화. 이를 막기 위한 balance로서 의미가 있고, 전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화는 지구 전체 이론화의 첫 걸음임. 동아시아만 해서 특수성 강조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음.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 이론화하면서 서구 보편화의 과정을 뒤집어서 본 뒤에 지구정치를 보편화할 것인가의 문제의식.

현실주의적인 의미. 지금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행위자들 간의 엄청난 blame game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옴. 우리가 다 나쁜 놈들인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아도 문제는 발생 가능. 지금 영토문제 등. 서로 영토를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도 있지만 전근대적 영토관념이 근대적으로 갈 때 순조적으로 가지 못함. 제국지가 imposed된 것, 구조 자체를 blame해야 하는데 국제정치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인간관계, 결혼문제도 서로 잘못 없는데 결혼 자체의 제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제도 blame할 필요. 따라서 국제정치 자체. 일본은 제국이 된 것은 근대국제관계의 편입 시에 제국-식민지 선택밖에 없었으므로 제국이 되는 것 밖에 답이 없었다고 함. 동아시아를 이론화할 수 있다면, 지금 생기는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힐 수 있다면 다른 논리로 대응 가능. 상대의 제로섬 논리 깨는 것 이외의 방안 제시 필요. 역사학계도 내셔널리즘적이고 지식공동체에서 국제정치학자들만이 오염 안 되어 있음. 국제정치학자들이 동아시아 이론, 구조를 제대로 이론화해서 동아시아 문제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전통시대로 소급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다는 것임. 전통 어디까지 보는 것임.

오늘 리딩에서의 몇 가지 이야기. 첫째, 책봉-조공. 예치적 개념, 제도적인 현상으로서의 개념으로 관계 설명. 예치적 관념을 만들어낸 구조적인 변수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음. 폭력질서 등. 국제질서를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흐름 등이 있음, 폭력질서, 정치질서, 경제질서 등의 거버넌스 개념들이 있음. 전통질서는 역사사료적인 개념만 쓰지 이 개념들을 만든 social force에 대한 연구가 적음. 역사학자들이 예치적 관념, 행위자들 간의 담론만으로 상황을 설명할려고 하니까 분석 안 됨. 어떤 개념으로 지금의 국제정치학 개념, Mann식의 4개의 social forces로 설명하는 것? 전통시대를 볼 때 왜 청나라가 유라시아에 대해선 직접지배, 회유를 하고, 이 쪽은 조공-책봉을 했나? 폭력질서 간의 관계. 어떨 때는 상징적 조공-책봉 하는지? 피책봉국의 정치적 상황도 중요했음. 지배집단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쿠데타 이후 명의 책봉 중요함. 요즘의 제국주의 이론에서 식민지 국가의 엘리트론과 같음.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역사학자들이 분석하는 개념의 근본 분석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음. 그런 개념을 쓰는 상상력, 능력이 있는가? 조직원리라는 개념, 더 middle level의 이론적 개념들, 운용원리 등. 다른 국제정치학적 개념 필요함.

둘째, 2000년, 3000년 너무 긴 시간적 차원. 적절한 시기분류 있지 않으면 전근대로 뭉뚱그릴 수 없음. 왕조관계가 hierarchy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 실제 중원왕조도 주변국관계에서의 학습, 축적이 있었음. 평면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님. 시간적 분류 필요

셋째, 공간적 분류. 중화질서이긴 하나 target country, 관계에서 다름.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인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강도 등. 왕조관계 들 간의 빈번한 관계가 있었나? 조공관계, 1년 3공을 하지만 실제 경제적 교환관계도 적음. 얼마나 촘촘한 네트워크였는지도 중요. 상호작용의 범위, 내용을 파악해서 시공간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유라시아, inner Asia와 주변국가, 4개의 전형적 조공국가들의 대상국에 따른 논리 필요. 중원왕조의 성격이 한족왕조냐 비한족왕조냐에 따라서 다름. 제도적인 틀이 다르므로 나뉠 필요 있음. 이 국가들이 썼던 것. 호리 도시카즈는 조공-기미-회유 여러 개념들을 씀. 그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봉작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지 연구 필요. 어떻게 연구하느냐? 어떻게 연구하느냐의 핵심은 역사학자들이 해온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국제체제를 아는 개념적 틀을 적용하는가, 이를 지금과 비교해서 현재 미치는 국제정치의 실제적인 영향을 분석. 인식에서 남는 것, 실제에서 남는 것 구분해서 처리해야 함.